사 람 사 랑

회원통신 제48호(98/12/17)

****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rights@chollian.net Internet Web; http://www.interpia.net/~rights/

들 길 - 고은

입은 옷 그대로도 왜 그런지 새롭습니다
사람에게는 10년 20년의 가파로운 단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울음이 잠겨 있습니다
반쯤 혹은 다 물속에 잠겨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의 울음을 만나러 나섭니다
어찌 그것을 내가 손쉽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유난스레 서쪽으로 드넓게 트인 날

아침 이슬이 풀 속 깊이 박혀
풀 끝에 맺힌 그것이 스러진 뒤에도
간난아기의 숨은 넋으로 반짝거리며
잘 젖어버리는 들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들길이 이따금 있어야 합니다
늘 하는 일밖에 모르다가도
수시로 있다가 없어지는 구름 아래
까닭없이 나서는 들길
그러다가 먼 데 가 있는 사람이듯
무엇인가 그리워할
들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길 오다가다 하늘 속인가 땅 속인가 모르게
누구의 울음소리와 만나야 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98년 송년회
일시 : 1998년 12월 23일 (수) 오후 7시 / 장소 : 혜화동 민속주점 '슬익는 마을' (T 765-6981)
* 함께 술한잔을 기울이며 그리운 얼굴 이번에는 꼭 봅시다.

'칠레 전투' 단연 압권, 서울만 1만 2천명 다녀가

제3회 인권영화제 성황리에 종료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해 열린 제3회 인권영화제-서울이 지난 10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5일부터 6일간 진행된 서울 영화제에는 1만 2천여명이 다녀갔습니다.

개막일인 6일에는 3개의 상영관, 7일과 폐막일인 10일에는 2개의 상영관, 평일에는 1개의 상영관을 이용해 총 35편의 주옥같은 작품들이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란 주제로 열린 이번 영화제는 폭압적 횡포에 맞선 인권의 수호자들/전쟁: 집단적 광기와 그 희생자들/인권의 음지: 소수자들/만인의 자유, 만민의 평등/우리들은 '빅 부라더'/<특별기획전> 신자유주의와 도전하는 민중들 등 6개의 소주제로 나눠 선정된 영화들이 관객들을 맞이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상영되는 소문으로만 듣던 작품들은 그 명성에 걸맞게 관객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그중에서도 '칠레 전투'는 단연 압권이었습니다. 한국 작품 중에도 'IMF 한국, 그 1년의 기록-실직 노숙자'나 '입국금지' 같은 작품들이 관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지난해 경찰과 학교당국의 집요한 방해로 인해 전쟁 치루듯 긴장의 나날을 보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거의 경찰이나 학교측의 방해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화제를 치뤄낼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경찰은 '사후 처리'를 방침으로 정하고, 전화로 심의를 권유하는 정도의 압력만을 행사하였습니다. 물론 '사후 처리' 방침을 정하고, 경찰이 모든 상영작들을 스크린하였기 때문에 이후에 무슨 조처가 있을 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번 영화제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려 8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번역, 자막, 진행 등의 작업에 결합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에 그나마 영화제의 전과정을 마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영화제에 사랑방 사무국의 인력을 최소로 투입하여 사업의 중단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면에서는 약 5백만원 이상의 적자를 안게 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후원회원들이 적었고, 물품 판매도 예상 밖으로 저조한 탓이었습니다. 경제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워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12개 지역 지방 영화제 진행중

한편, 올해는 지방의 영화제도 비슷한 시기에 열려 전주를 시작으로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강릉, 광주, 구리·남양주, 군산, 부산, 수원, 안양, 원주, 인천, 제주, 청주 등 12개 지역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제 영화제가 3회에 이르게 되어 지방 영화제도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에서는 자치단체들이 상영금지 통보를 한다든지 하는 행정적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건 별도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인권협이 주최한 이번 영화제는 집행위원회와 영화제 사무국,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의 지혜와 힘이 결합된 한판 축제로 귀결되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진지하게 공유한 유익한 토론

-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토론회 -

지난 8일 인권영화제가 열리던 동국대 학술문화회관 예술극장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토론회- 세계인권선언 무엇이 문제인가'는 한국의 민간단체가 세계인권선언을 소재로 벌인 유일한 토론회였다. 인권협 주최로 열린 이 토론회는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유로운 '인권적 상상력'을 발동해 선언을 분석, 비판, 첨가해 보자는 취지로 열렸다.

이 토론회는 기존의 학술토론회와는 다른 파격적인 형식을 도입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먼저 세계인권선언 애니메이션을 감상한 뒤, 보조사회자인 류은숙 씨가 객석을 돌면서 '춘향전' 얘기 등을 들어서 권리 찾기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흥미가 붙은 청중들에게 김승환 전북대 교수가 '세계인권선언의 의의와 내용'에 대해 세심한 설명을 해주었고, 오완호 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은 세계인권선언을 둘러싼 논쟁들을 1) 서구의 이중적 인권정책과 가치혼돈, 2) 불가분성에 대한 논쟁, 3) 보편성을 둘러싼 논쟁, 4) 새로운 과제의 출현 등으로 설명했다. 오창익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인권운동가의 맹성을 촉구"하는 고백적으로 한국의 인권운동의 현실을 피력하였다. 박원순 변호사의 사회로 발제와 지정토론자의 토론이 끝났고, 이것은 이 토론회의 도입부에 해당했다.

이어 다시 마이크는 객석의 보조사회자가 넘겨 받았고, 150여명의 관객들이 자유로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OHP로 참석자들의 발언과 관계된 선언의 조문들이 비춰지고, 문제로 지적되는 조항들에 삽입을 하거나 선언의 내용에 없는 사항은 추가하는 방식으로 새로 선언의 조문을 기입해 나갔다. 이런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되자 방관자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활발히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했다.

파격적인 형식의 도입으로 활기찬 토론

발언자들은 50년전에 제정된 선언의 내용이 아직도 우리 현실에서는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개탄하였고, 선언의 내용을 교육하고 알려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런 운동을 하지 않은 채 문제점을 지적하자는 주최측의 기획의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등학생들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체벌이나 교육내용에 관한 문제를, 민가협 어머니들은 양심수와 국가보안법, 준법서약의 문제 등을 지적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권에 대해서 또 문제를 지적했다. 동성애자들은 동성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 등을 삽입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했다. 그외에도 민족의 자결권과 평화에 대한 권리, 다국적 기업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도 주요하게 제기된 문제들이다. 또,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제기한 사람도 있었다.

2시간 30분간의 토론 동안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뜨지 않은 채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부족한 부분까지 끄집어내어 제시하였던 토론회, 왜 진작 이런 토론회를 준비하지 못했는지 모두가 아쉬워했다.

****

사 / 업 / 보 / 고

(98년 11월 셋째주부터 12월 둘째주까지)

****

국보법 폐지 국제연대집회 개최

법무부장관 국보법 손질 의사 밝혀

지난 12월 1일 국가보안법 50주년을 맞아 '국가보안법 50년이면 충분하다'는 제목 아래 여의도 일대에서 국가보안법 장례식과 국제연대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인권협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연합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국제연대 집회에는 아시아와 국제인권단체, 해외동포단체 등이 연대서명을 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약 한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준비된 국제연대집회는 최종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태평양촉진모임(AP-FT)을 비롯한 일본, 태국,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등 8개국 19개 단체가 서명에 참가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로는 팍스 로마나, OMCT를 비롯한 4개 단체가 서명했고, 해외동포단체로는 재미한국청년연합을 비롯한 12개 단체가 서명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연대사를 보내왔습니다.

더 일찍 준비가 되고, 해외에 연락을 했다면 많은 단체들이 서명에 참가할 뿐만 아니라 공동집회도 가능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시아, 국제, 해외동포단체 연대서명

행사는 낮 12시 30분 여의도공원 광장에 집결한 각 단체 소속 3백여명이 국가보안법을 상징하는 시신과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피해자 명단 등을 입관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상여를 꾸미고, 국가보안법의 죽음을 알리는 장례행렬이 KBS를 지나 한나라당사를 거쳐서 장기신용은행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최영도 민변 회장님의 연설과 허창수 앰네스티 한국지부장이 대독한 앰네스티 사무총장의 연대사, 인도네시아 활동가들의 지지연설, 공동선언문 낭독으로 이어졌습니다.

12월 1일을 전후해 한겨레신문과 국가보안법 공동캠페인팀이 공동으로 기획한 국가보안법 연재 시리즈가 여론조사 등 4회에 걸쳐 게재되었습니다. 또, CBS 시사쟈키에 백승헌 변호사가 출연하여 헌변측 이진우 변호사와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국보법 개폐 논의 가능성

이렇게 12월 1일을 전후해 국가보안법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이 공동캠페인이 진행되었지만,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에 가려져 부각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식 당시 법무부장관이 국가보안법을 대체입법으로 손질하고, 적용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가깝게는 내년 상반기 중에 개폐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남북합의서와의 모순을 해결하고, 국제사회에서 가시적인 인권개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손질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상반기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새로운 전환기가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월간 『말』에서는 내년 내내 국가보안법 연속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방과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민가협, 전국연합 등은 19일 종로성당에서 '김대중 정부 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의 현 주소'란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1일, 『한국 감옥의 현실』 출판기념회

감옥 인권실태 조사사업 1단계 마무리

지난 2월에 준비하고, 3월부터 실행에 옮겼던 '감옥 인권실태 조사' 사업이 무려 10개월만에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감옥과 관련한 21개 분야의 264개 항목에 이르는 설문 내용만으로도 이전의 설문조사와는 질적으로 달랐던 이번 조사는 정부 수립 이후 최대의 설문조사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는 96년 12월 이루 출소한 230명의 감옥 수감자들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설문지를 수거하기 위해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전국의 각 교도소(구치소) 앞에서 설문을 배포하였고, 신문광고도 여러 번 게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출소자들과 관련있는 출소자들의 단체들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21일 출판기념회에서 선보일 『한국 감옥의 현실』은 사랑방 편집실장이 운영하는 인권전문 출판사 '사람생각'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신국판 400쪽에 이르는 이 책자는 감옥을 바꾸는 사업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이 책자는 권당 1만 2천원씩 판매하게 됩니다.

21일 오후 2시부터 명동의 가톨릭회관에서 열리는 '『한국 감옥의 현실』 출판기념회 및 기자간담회'는 이 조사 사업을 종합적으로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날 행사에는 공동사업을 벌였던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사랑방을 비롯한 인권단체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감옥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자리에는 얼마 전 출소한 조세형씨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책 출판기념회로 이 사업의 1단계를 마무리하고, 보다 지속적인 감옥문제에 대한 연구작업을 수행할 '(가칭) 행형연구모임'을 띄울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상정 연기

국가인권위원회를 둘러싼 법무부와 여당, 민간단체간의 치열했던 공방이 12월 9일을 기점으로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일 대통령이 청와대로 법무부장관과 새정치국민회의, 자민련의 정책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찬을 하면서 의견조정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자민련 차수명 정책위원장이 법무부안을 지지하고 나서서 의견조정이 끝내 이뤄지지 못하였습니다. 대통령은 다시 법무부, 두 여당 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민간단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권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 공추위는 자민련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대국민 홍보용 자료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경 열릴 임시국회에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민간단체 공추위는 9일의 청와대 조찬을 앞두고 서준식 대표를 중심으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집중 로비와 원로 선언을 조직하였습니다. 이런 활동이 영향을 미쳐서 법무부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것을 막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보법, 인권교재 출판 미뤄져

이미 원고가 완성되어 출판사에 넘어간 국가보안법 교재와 인권교재는 모두 출판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출판을 맡은 '도서출판 사람생각'이 인권영화제 관련 인쇄물과 『한국 감옥의 현실』 책 출판 관계로 여력이 없어서 계속 작업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책자는 올해 안에 발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2월 1일 펴낼 예정이었던 '국가보안법 7조 자료집'은 내용의 미비로 연기되었

습니다. 자료집은 내년 1월 중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 서준식 대표는 7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행사 및 세계 인권 NGO 지도자 회의'에 프랑스 정부의 초청으로 참가하고 돌아왔습니다. 국내에서 국가인권기구 사업 때문에 출발이 늦어져 9일부터 참가했던 서대표는 16일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 양지마을·송현원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노재중 이사장 등에 대한 재판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과 11일 증인신문을 가졌고, 18일과 1월 8일에도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랑방에서는 이 재판을 계속 모니터하여 재판 이후의 대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 류은숙 인권교육실장은 지난 15일 안양 전진상사회복지관에서 주최하고 있는 제1기 인권학교에서 아동권을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또, 11월 20일에는 아동권리학회 주최의 세미나에도 참석하였고, 인권영화제 사무국에 파견되어 홍보와 진행 등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 배경내 씨는 11월 21일 교육부 주최의 학생인권선언 공청회에 참가하여 교육부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교육부는 12월 10일 학생인권선언을 공표하려던 계획을 바꿔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한편, 배경내 씨는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아시아·태평양 인권교육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 박래군 사무국장은 12월 4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생회 주최로 열린 '세계인권선언과 국가보안법' 주제의 강연에 다녀왔습니다. 또, 고문후유증으로 자살한 경희대 79학번의 이길상 씨 빈소에 8일 다녀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기자 이주영 씨가 내년 2월경부터 3개월간 제네바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기자는 팍스 로마나의 이성훈 씨의 도움을 받으면서 제 55차 유엔인권위원회 전 과정에 참가하여 모니터하게 됩니다. 이번 제네바행은 미국 쪽의 인턴쉽 재정지원 프로젝트에 응모한 결과 이뤄지는 것입니다.

□ 인권정보자료실은 98년 정기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정부를 수집하여 국정감사자료집을 묶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주문한 부수대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은 정보자료실의 엄주현 씨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하루소식>에 연재중인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연재기획은 19일자로 끝맺게 됩니다. 총 17회에 걸쳐서 선언의 각 조문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 이 기획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이 연재물을 보완하여 책자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한편, <인권하루소식>은 29일자로 올해 발간을 종료합니다.

□ 최근 들어 외국 손님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캐나다 총리실 아시아 선임분석관 커터스 심슨 씨가 방문하여 인권상황을 물어보았습니다. 또, 16일에는 네덜란드의 한 기자가 방문하여 김대중 정부 하의 인권상황을 집중적으로 묻고 돌아갔습니다. 한편, 11월 26일에는 한국도시산업선교회 초청으로 한국에 와 연수중인 인도네시아 운동가 3인이 방문하여 사랑방의 활동을 듣고 갔습니다.

10대 뉴스 설문 23일까지 응답을!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올해의 인권 10대 뉴스 선정 참여해 주십시오. 23일 마감이므로 서둘러 주십시오. 꼭 자신의 직업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동 선언

우리는 1998년 12월 1일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어 50년이 되었음에 주목한다.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였던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사용되었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모방한 국가보안법은, 냉전이라는 세계사적 환경과 분단이라는 한국사회 특수한 환경을 배경으로 암울하였던 독재와 분단으로 얼룩진 한국의 현대사를 반영하며, 민주주의의 증진과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많은 한국민에게 큰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였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집행을 책임지는 정보, 수사기관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여 왔다. 새로운 독재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독재를 연장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더욱 나쁘게 개정하고, 정보기관에 더욱 많은 권한을 주어 독재의 영속화를 위하여 사용하여 온 것이다. 이러한 국가보안법과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한 기관들의 존재는 한국민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억압하여 한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으며, 한국사회의 긍정적인 발전을 가로막았다.

이제 전세계적으로 냉전이 종식되어 가고 있고, 남북한 사이에서도 화해의 새 기류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현 대통령은 과거 독재정권 아래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에 당선된 후 인권을 새 정부의 모토로 하여 인권을 보장하는 대통령이 될 것을 세계에 약속하였다. 우리는 한국의 대통령이 과거 야당 시절에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이보다 완화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야 역설하였음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보장만이 국가안보의 최선의 길임을 확신하기에 완화된 형태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불만족스러운 것이었지만 한국에서 단계적으로라도 국가보안법의 위력이 약화되어 나갈 것을 기대하였고 인권에 관련한 국제기준이 한국에서도 유보없이 적용될 것을 희망하였다. 그런데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가까이 흐른 지금 시점까지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어떠한 전향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또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던 양심수 중 상당수가 사면되지 아니하였고, 올해에 벌써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가 300여명에 이르고 있음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지 무려 반세기가 흐른 이 시점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확인하며,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대하여 지지를 선언한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은 아시아 각 국, 나아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악법을 폐지하여 나가는 데 있어 큰 기여를 할 것임을 확신한다. 그리고 한국의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위해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된 모든 사람들을 즉각 석방할 것과 국가보안법과 이를 기초로 한 정보, 수사기관의 개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1998년 12월 1일

한국: 인권협 등 5개 단체/아시아 인권단체: ACFOD 등 20개 단체/국제인권단체: OMCT 등 4개 단체/해외동포단체: 재미한국청년연합 등 12개 단체

97년 11월 재정보고

(97년 11월 16일 - 12월 15일)

전기이월: **- 5,863,352원**

수 입		지 출	
회비	1,568,300	활동비	5,595,000
구독료	2,186,500	발송비	645,350
사업수익		사무비품	340,000
자료판매,복사	108,900	사무실유지	1,033,900
불검카드 판매	293,600	자료구입	45,000
강연	150,000	식대(야근)	263,000
기타수익	518,648	전화요금	2,143,751
후원금	2,078,063	사무기기	30,000
차입	4,300,000	복사비	300,000
기타	17,036	연대사업비	320,000
		기타	29,500
수입총액:	**11,221,047원**	**지출총액:**	**10,745,501원**
최종결산:	**- 5,387,806원**		

< 11월 자문·운영위원 회비 > (가나다 순)

[redacted]

◈ 김장 50포기를 하고 나니 한겨울 나기가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차입을 할 정도로 사무실 재정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밀린 회비를 12월이 가기 전에는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운영위원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회비는 사무실 운영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 인권운동사랑방에 보이지 않는 후원자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들께 정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 자문위원으로 정대은·문영헌 씨가 새로 들어오셨습니다.

◈ 11월 지출액중 5,595,000원은 9,10,11월 밀린 활동비를 합한 총액입니다.

<구좌 안내>

[redacted]

지 로: 7618848 예금주: 서준식